



08-44 (통권 222호)
2008.11.07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적 영향
- 국내 금리와 주가는 폭락과 반등을 반복

경영 노트

- 잘난 브랜드 하나가 회사를 살린다

차이나 리포트

- 중국-대만 간 '양안삼통(兩岸三通)'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저널 브리프

- 공격적인 M&A로 고속성장 밑거름 삼아

洗心錄

- 초심(初心)이 중요한 이유

□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적 영향

-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는 정부개입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당과는 다른 기조를 보임으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통상정책 : FTA 수정 혹은 재협상이 요구되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세부적으로 자동차산업은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해소 요구 등으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가능성 증대
 - 에너지 정책 : 오바마 정부가 환경중심 정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녹색성장정책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 및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교 정책 :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 무드로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는 국가 신뢰도 증가 등 긍정적으로 작용
- 한편, 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오바마는 기존의 FRB와 재무부의 구제금융, 상업은행의 부분 국유화 등 유지하면서 정책 강도를 높일 것임

□ 국내 금리와 주가는 폭락과 반등을 반복

-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11월 6일)에 따르면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하다가 국채발행물량 확대 발표(11월 3일)로 반등하였고, 코스피지수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
 - 국고채 3년 유통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와 미 FRB와 통화스왑협정 체결(10월 30일)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국채발행물량 확대 발표(11월 3일) 이후 반등
 - 91일 CD 유통수익률은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증가하다가 기준금리 인하(10월 27일) 이후 큰 폭으로 하락
 - 코스피지수는 10월 24일에 939p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기준금리 대폭 인하와 통화스왑협정 체결에 힘입어 반등하였다가, 폭락함
- 한편,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10월에 7조 5,000억 원으로 9월의 5조 원보다 2억 5,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사채(공모)와 CP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증가 전환

□ **잘난 브랜드 하나가 회사를 살린다**

-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브랜드 하나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됨
 - 브랜드 가치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가 좌우되므로, 전사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기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할 것이 요청됨
- *Strategic Brand Management*(2005)를 저술한 케빈 켈러 교수는 잘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중점 사항을 제시

| | 내 용 |
|-------------------|--|
| 1. 고객 마음속에 브랜드 심기 | <p>“고객에 기초한 브랜드 에쿼티(Customer-Based Brand Equity) 전략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와 2차적 욕구를 이해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 자사가 내세우고자 하는 이미지, 신념, 느낌, 인식 등을 브랜드와 연결 |
| 2. 브랜드 구축 전략 수립 | <p>“브랜드 사다리(Brand Ladder)라고 불리는 4단계를 따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요소 :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정→소비자에게 전달할 브랜드 의미 개발→브랜드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브랜드의 지속적 관계 유지 |
| 3. 브랜드 포지셔닝 | <p>“브랜드 포지셔닝은 제품과 이미지를 고객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 목표 고객, 주요 경쟁자, 경쟁 브랜드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자료 : 매일경제 (2008.10.08)

- 불경기에는 자사의 차별적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기업은 모든 마케팅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일괄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구해야 함
 - 기업의 로고, 심벌, 슬로건, 포장까지 모든 요소에 브랜드와 동일한 이미지를 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중국-대만 간 '양안삼통(两岸三通)'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 (현황) 11월 4일 중국은 대만과 처음으로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우(通郵)를 실현함으로써 경제 일체화(一体化)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 「항공운수협약」, 「해운협약」, 「우편협약」, 「식품안전협약」를 체결함
 - 중국과 대만은 여객 전세기 운항 편수를 기존의 주당 36편에서 108편으로 세 배 증가시키고, 최초로 해운화물의 직항노선을 개방함
 - 양안 간에 기존에는 등기 우편 교류만 가능했으나 우편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반 우편과 소포, 속달 우편 등의 교류도 가능해짐
 - 또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양안 간 즉각적인 의견 교류와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

< 중국 - 대만 합의사항 >

| 분야 | 개요 | 시기 | 주요 내용 |
|------|--------------|----------|--|
| 항공 | 여객 전세기 운항 확대 | 2008. 12 | 주 운항 항공편을 36편에서 108 편으로 확대 |
| | 항공 화물기 노선 개통 | 2008. 12 | 상하이, 광저우, 타이베이, 가오슝 매월 60편 운항 |
| 해운 | 해운 직항 노선 개통 | 2008. 12 | 중국 63개 항구 개방, 대만, 11개 항구 개방 |
| 우편 | 우편 교환 확대 | 2008. 12 | 등기 우편 이외에도 일반 우편, 소포 속달우편 확대 |
| 식품안전 | 식품안전 문제 협력 | 2008. 11 | 양안에서 발생한 중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의견 교류와 정보 공유 |

자료 : 신화통신망.

- (경제적 효과) 양안 간 항공과 해운 직항 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운송비 절감** : 기존에 한국, 일본, 홍콩을 경유하던 양안 화물선들은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 향후 5년 간 직접 경제효과만 1,000억 대만달러(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안은 또 상대방 화물에 대해 영업세와 소득세도 면제

- **양안 일일 생활권으로 전환** : 양안 간 직항 항공노선이 3배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양안 주요 도시들 사이가 일일 생활권으로 묶임
 - 상해, 항주, 남경 등 연해도시들은 물론, 서안, 중경 등 내륙 도시와도 항공 직항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일일 생활권이 형성됨

- **대만 자본의 중국진출 러시** : 중국 내의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 악조건으로 탈 중국화 추세에 있던 대만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회복될 것임
 - 매년 대만인 400~500만 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기업들은 물류비용 등 원가절감이 가능해져 중국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시사점) 양안 간 삼통 실현은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국내 공항, 항만 경유 물동량 축소가 불가피 하므로 대체 수요 발굴이 필요함
 - 한국 기업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인 부품, 반도체 등 중간재와 자본재가 대만과 중복되므로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해야 함
 - 국내 기업들은 규모와 경험 면에서의 장점을 살려 공격적 경영으로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공항과 항만은 중국 북방 지역의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을 통해 물동량 감소를 최소화해야 함
 - 국내 항공, 항만의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고, 물류 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물류허브 건설을 서둘러야 함

□ 공격적인 M&A로 고속성장 밑거름 삼아*

- 미국의 음성·화상회의 솔루션 기업인 폴리콤(Polycom)은 지난 10년 동안 적극적인 M&A를 통해 성공신화를 이룩하였음
 - ‘통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부족한 기술이 있다면 해당 기술 보유업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인수 추진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폴리콤은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11개의 업체를 인수·합병함
- 폴리콤이 인수한 기업과 관련 기술

| 인수 시점 | 피인수 기업 | 관련 기술 |
|----------|------------------------------|--|
| 2007. 3 | SpectraLink and KIRK telecom | workplace wireless telephony |
| 2007. 1 | Destiny Conferencing | immersive telepresence |
| 2005. 8 | DST Media | video networking |
| 2004. 1 | Voyant Technologies | voice conferencing and collaboration network solutions |
| 2003. 1 | AGT(VCAS software) | video scheduling and management software |
| 2002. 6 | MeetU | web collaboration software |
| 2001. 12 | ASPI Digital | installed-room voice systems |
| 2001. 10 | PictureTel | PC-based video communications systems |
| 2001. 4 | Circa Communications | IP telephony products |
| 2001. 2 | Accord Networks | network infrastructure systems |
| 1998. 1 | ViaVideo | appliance-based video communications systems |

- 금융위기로 인해 최신 기술을 보유한 여러 유망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때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M&A를 펼칠 시기임
 - 평소 필요한 기술과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하고,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M&A 추진

* 이 글은 조선일보(2008.11.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초심(初心)이 중요한 이유

사람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고생했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달콤한 성취의 열매를 탐닉하는데 열중하기 쉽기 때문이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일이다. 제후들의 우두머리인 패자(覇者)가 된 제(齊)나라의 환공이 수훈 공신들을 모아 크게 잔치를 열었다. 이때 공신 중 한명인 포숙아는 “아무쪼록 공께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외로 망명하시어 고생하던 일을 잊지 마소서”라고 진언하면서, 공신들에게도 고생했던 기억들을 되새겨 볼 것을 당부했다. 후대에 당 태종 이세민은 이 고사를 즐겨 인용하면서, 언제나 처음 시작하던 때의 겸손한 마음을 간직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신하들에게도 이것을 주시시켰다고 한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거나,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인데,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초심(初心)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이다. 누구나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은 순수하고 겸허하며, 열정적이면서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말은 화려한 승리에 도취하여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테네는 무적이라고 자부했던 해전에서 졌고, 1차 대전 때 프랑스는 마지노선만 믿다가 무너졌으며,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T 모델만을 고집하다가 GM에게 업계의 패권을 빼앗겨 버렸다. 그 GM도 자만하다가 얼마 전에는 도요타 자동차에게 세계 자동차 업계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었다. 한때 성공했던 그 추억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현재의 자신이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 급변의 시대에 기업 위기의 대부분은 기업을 일으켰을 때의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훌륭한 착상이란 새벽 닭과 같다. 곧 이어서 다른 닭들이 울어댄다.”

- 칼 하인리히 바거를(1897~1973) : 오스트리아의 작가